세계를 바꾸는 여성의 사랑

: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사랑 탐구

양 운 덕

1. 나는 사랑한다. 너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처럼 자신과 대상들을 사고하는 주체는 모든 것의 근거이자 지배자로서 고독하게 군림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는 존재한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와 너는 더 이상 그 자체로만 존재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나, 또는 사랑하는 너는 서로 끌고 당기면서 밀치고, 흡수하고 배제하고 이끌리고 거리를 두는 상호작용에 휘말린다. 여기에서 자기-타인의 공동 존재는 양자가 존재하는 바탕이 되고 각자의 지향을 구체화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원리에 내용을 마련한다. 이런 점에서 고독한 주체, 타인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추상적인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나는 기껏 나일 뿐, 그 누구와 공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미움을 받지도 않아!) 주체는 사랑을 통해서 (독자적인 개체와 자립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해 애쓰면서 자기 너머에 있는 타자와 마주하고 타자를 자기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수용한다.

"나와 너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한다!"

2. 여성의 사랑이 세계를 바꾼다면...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을 탐구하면서 남성의 '행위'와 여성의 '존재'에 주목한다. 그는 존재에 바탕을 둔 여성의 사랑이 세계를 바꾼다고 본다. 남성이 주도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틀과 다른 이런 관점은 사랑의 어떤 점에 주목하는가?

뜨거운 감성을 지닌 남성이라면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그 여성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낯선 느낌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느낌은 그 여성이 그보다 과학을 잘 모르거나 예술적 창의성이 떨어지거나 리더십이 부족하더라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교와 다른 차원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우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는 남성적인 우수함(과학적인 지식, 예술적인 재능, 정치 경제적인 권력이나 윤리적인 영웅 같은 것)이 외부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EA 27-8)[1]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남성들이 자신들이 만든 산물들로 평가받고자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와 다르다. 남성의 우수함이 행위un hacer에 있다면, 여성의 우수함은 존재un estar ser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A 28) 따라서 남성이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녀의 행위actos가 아니라 그녀의 본질essencia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자기다움personalidad을 드러내는 것presencia이다. 이는 빛이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자신을 두드러지게 하고 빛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여성의 본질은 존재하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빛내는 것이다. 남성들이 외적인 결과에 매달리고 행위를 우선시한다면, 여성들은 스스로 존재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유로운/자족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겉보기에 여성들은 어떤 것에도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같다. 또한 그녀들의 영향력은 폭력적이지 않다. 남성들은 어떠한가?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인 유용성, 과학, 예술, 부, 공공질서를 산출하는데 쏟으면서 폭력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고,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돌 위에 돌을 놓아 기념물을 만들고, 책을 쓰고, 화려한 말들을 쏟아내고, 명상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손을 움직이는 것도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몸짓을 하는en gesto 것 같은 느낌을 준다." (EA 29)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여성의 영향력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이 그것이 퍼져 있어서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남성들의 영향력처럼 요란스럽지 않아서 그저 "대기 중에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남성은 자신이 행위하는 것lo que hace으로, 여성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lo que es으로 자신을 드러낸다.(EA 30)

---

[1]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사랑에 관한 연구들Estudios sobre el amor』의 스페인어 원본을 EA로 줄여 쓰고 쪽 수를 표시함.

남성의 지향점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다면, 여성의 그것은 스스로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보다 섬세하고 "보다 더 요구하는mas exigente" 새로운 (여성의) 유형을 창조하고자 한다. (EA 30-1) 이때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여성의 최고의 임무가 요구하는 것exigir, 성에게 보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남성은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멋진 면이 "아름다운 재판권자"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잘난 체 하는 남자라도 사랑의 감정에 이끌릴 때 겉치장을 하는 것은 여성이 자극하는 정신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이 자신이 지닌 면모를 재정비하고 닦는 것은 어떤 완전함을 위한 충동이다. 나아가 남성은 여성 앞에서 자신이 어떤 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어떤 말을 하고, 특정한 몸짓을 하고, 그녀의 눈앞에 선다.

그녀가 받아줄까? 아니면 버림받고 말 것인가?

여성은 그런 선택지로 "가벼운 거부의 몸짓un leve gesto reprobatorio"이나 "힘을 북돋아주는 미소una sonora que corobora"를 던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상대가 싫어하는 면을 고치고 좋아하는 면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남성들은 자신의 바뀐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다. 그녀는 "한 송이 장미꽃처럼" 대응할 뿐인데 "그것이 마법의 끌이 되어서 전기충격을 일으킨다."(EA 31)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해진 것들과 물려받은 생각들, 관습적이고 둔한 감정들로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대해서도 평범한 생각, 현실에서 쉽게 실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닌다. 하지만 새롭게 생각하고, 예술적 규칙을 창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남성들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와 정열적인 감성으로 남성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요구하는 비범한 여성들이 있다. 이런 여성의 새로운 이상은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여성이 남성에게 바라는 수준이 그 사회가 지녀야 할 고상하고 모범적인 태도, 전형의 도덕적 수준을 결정한다. (EA 32-3)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순수한 여성성이 문화의 본질적 차원이라고 본다. 이것은 문화적인 질을 결정하고, 역사를 구성하는 여성만의 독특한 방식을 의미한다. 여성은 자신의 개성persona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다듬고 정련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그녀의 자기 관리가 인간성의 범위를 넓히고 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태도에 관한 정교한 감수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성들은 드물지만 남성이 만든 보잘 것 없는 산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한다. 남성에게 드물 만큼 특별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계획과 시도들을 촉구한다. "모든 존재는 상승의 리듬을 타고 그런 여성이 활동하는 나라는 희망과 역사의 승리와 확장을 이룬다. 그래서 새로운 삶vita nuova이 된다."(EA 33)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단테의『새로운 삶』에서 피렌체의 한 처녀가 짓는 두 가지 표정에 주목한다. 우호적인 미소나 냉정한 경멸의 시선은 남성들에게 일정한 지향점을 제시한다. 괴테가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고양시킨다."고 하듯이 여성들이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제시하는 태도가 남성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3. 사랑에 빠짐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현상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이 사랑에 빠짐enamoramiento이라고 본다.

"사랑에 빠짐은 사랑을 인간의 다른 행위나 감정과 구별하는 사랑의 본질이다. 사랑에 빠짐에는 열정이 있지만 그것과 열정은 다르다. 열정은 사랑에 빠짐이 지니는 특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EA 131)

이처럼 참된 사랑에는 '사랑에 빠짐'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육감적인 뜨거움, 과장된 표현, 기술적인 포장, 애무, 열정 등과는 다르다. 사랑에 빠짐은 에로티즘에 관련된 현상들의 전형이자 결정체이다. 이것의 특성은 전면적인 환영ilusión integral을 주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이자, 자기가 그 사람의 심층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나의 고유한 삶의 근원에서 뿌리 뽑혀져서 다른 존재의 근원으로 이식되는 것과 같다.(EA 47)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긴다. 곧 의지의 결정을 모두 맡긴다. 이런 근본적인 내맡김la entrega radical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내맡김un entregarse sin querer이다. (EA48)

이처럼 사랑에서 매혹encantamiento과 내맡김은 본질적인 요소이다. 어머니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환영이나 매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정신적 능력에 관계없이 근본적인 본능un instinto radical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친구는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경우들에는 반성적인 이유가 개입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경우에 영혼은 의지와 관계없이 그 대상에 사로잡힌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전면적으로 흡수하는 이 힘은 나를 나로부터 그 대상을 지향하도록 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서 산다고 할 수 있다. (EA 49)

그런데 성적인 끌림atración sexual의 경우에는 고유한 이끌림이 없다. 육체는 갈망을 자극하는데,

욕구에 따를 때는 (스스로가 대상에게 가지 않고) 그 대상을 자기에게 끌어당긴다. 이처럼 대상을 끌어당기는 욕망에서 대상은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심리적으로 욕망과 매혹당함ser encantado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욕망할 때 나는 대상을 흡수하지만, 반대로 매혹당하고 마술에 걸린 상태에서는 대상에 흡수된다. (EA 50)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정념pasión에도 참된 내맡김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정념은 영혼의 결함을 내포하는 병리적인 상태라고 본다. 그는 베르테르나 오셀로처럼 자살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정념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 정념은 사랑하는 감정의 절정이 아니라 열등한 영혼에 나타나는 퇴행 같은 것이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상태가 정념의 전형적인 예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널리 알려진 가짜 신화가 사랑을 움직이는 것이 동물적 본능에서 작동하는 요소적이고 원초적인elemental y primitiva 힘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랑은 그런 원초적인 힘과 다르다고 본다. 오히려 사랑은 본능이라기보다는 창조 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학 장르un género literario에 가깝다.

4. 사랑은 환상인가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 교본이 되다시피 한 스땅달의『연애론』에서 펼치는 사랑론, 사랑의 본질에 관한 고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스땅달 이론의 핵심이 수정(水晶) 이론이라고 본다. 잘츠부르크 수정 광산에 관목 가지를 떨어뜨려놓으면 다음 날 그 가지에 찬란한 수정가루들이 뒤덮인다고 한다. 스땅달은 사랑에 관한 인간의 마음도 이런 현상, 곧 여떤 여성의 실제 이미지가 남성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이미지 위에 상상의 층이 쌓이고 텅 비었던 마음에 어떤 완전한 것이 형성된다고 본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런 관점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완전한 것lo perfecto을 지향한다고 보는 점만은 인정한다. 이런 수정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곧 때때로 실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본질적으로 실수일 뿐이다. 어떤 이를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함을 그 사람에게 상상적으로 투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환영이 사라지

면 사랑도 함께 지워지고 만다. (EA 77) 이런 해석은 사랑이 허깨비visinario같은 것, 실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스땅달은 사랑을 세 종류로 구별한다—탐욕스러운 사랑, 정념의 사랑, 헛됨의 사랑. 그는 이 가운

데 정념의 사랑만을 참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런 구별이 참된 사랑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고 지적한다. 정념의 사랑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정념의 사랑은 참된 사랑을 은폐하기도 한다. "사랑은 그것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칭송의 도구가 되었다. 시인들은 정념이라는 화장 도구로 사랑에 화장을 해서 세련되게 치장하고 그것에 추상적이고 낯선 실재를 덧입힌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진지하게 느끼기도 전에 이미 사랑에 익숙해지고, 예술품을 대하듯이 그것을 평가하고 심지어 실습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틀에 사로잡혀서 추상적으로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남녀를 상상해서, 결국 그들은 허구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살아갈 뿐이다. 이런 사랑의 모습에서는 사랑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대상은 다만 핑계일 뿐이다. 사랑에 대한 이런 인식을 지닌 데다가 생각하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수정이론을 만들 것이다." (EA 79)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에 환영적이고 자기기만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사랑이 환영적인 것이라면 사랑의 본질을 사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가 어떤 여성을 사랑할 때 그녀가 나의 상상으로 만든 것이라면 정작 그 여성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 여성은 나에게 어떠한 동기도 주지 않는가? 사랑이 허구라면 사랑을 둘러싼 모든 것, 사랑에 영감을 부여한 대상도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EA 79)[2]

수정 이론은 사랑에 필요한 것이 완전한 사랑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상의 순간을 가장 신비롭고 심오한 순간이라고 강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수정 이론은 사랑의 좌절, 사랑이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힘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곧 사랑에 빠지기enamoramiento보다는 사랑에서 벗어나기/사랑의 실패desenamoramiento에 주목한다. (EA 88)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의 심리와 사건들, 사랑 이야기들에 빠져서 사랑의 본질에 소홀하거나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랑에 고유한 것인가? 그는 플라톤의 사랑관을 참조한다. "사랑은 아름다움을 낳으려는 열망이다."[3] 이때의

---

[2] 사랑하는 대상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그런 사랑은 끝날 수 있는가? (칸트적인 표현을 빌면) "사랑 감정은 그 대상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의 뜨거운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것", 사랑은 언젠가는 죽는데 그것은 탄생 자체가 착각이었기 때문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스땅달과 반대 지점에 있는 샤토브리앙의 경우를 "갑자기 그리고 영원히!"라는 틀로 대비시킨다. 샤토브리앙은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참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천부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사랑을 느꼈고, 영원히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런 사랑의 교리는 갑자기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은 것이다. 갑자기 그리고 영원히!)

[3] 플라톤을 추종하는 로렌초 데 메디치스Lorenzo de Médicis는 사랑을 아름다움을 갈망함appetito di belleza 이라고 보았다. (EA 92)

아름다움은 완전성을 지향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가 되려는 열망un afán de unirse이다. 사랑은 보다 완전한 대상, 자기보다 탁월한 것을 찾는 과정이다. (EA 89)

이런 완전함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점을 사고할 수 있는가? (물론 이런 완전함을 상대적인 것, 제한되고 유한한 완전함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틀로 사랑에 관한 논의에서 흔한 주제인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 성적 사랑amor sexual과 성적 본능 instinto sexual의 구별을 사고할 수 있다. 본능은 정신적인 세계와 전적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에는 단순히 육체에 대한 탐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감정적인 이끌림이 동반된다. 또한 성적 본능은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전적으로 육체적인 것에만 묶여있지 않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성적 본능이나 성 행위를 성적인 사랑과 구별한다. 어떤 경우이든 그런 본능적인 욕구나 행위는 사랑과는 다르고 그것은 그 대상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존재'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 사람을 알기 전에도 이미 그런 욕구는 존재한다.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본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완전성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EA 91)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성적 본능은 종족을 보존하지만, 종족의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육체적인 사랑, 타자를 향하고 그 타자의 영혼을 지향하고 그 육체를 바라보는 지극한 열망은 종족의 고양된 미래를 보장한다."(EA 91)

사랑은 (본능과 달리) 대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생기지 않고, 그 대상이 나타나야만 시작된다. 사랑에 빠지면 자기 안에는 자신의 개별성을 타자 속에서 용해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흡수하려는 화급함이 생긴다--신비한 열망misterioso afán.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면 견딜 수 없을 테지만, 사랑의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기까지 한다.

***바로 그/그녀에 대한 이끌림, 집중, 신비한 느낌**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스땅달의 주장과 달리 참된 사랑은 환상이 배제된 것이라고 본다. 사랑에 환영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환영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 환상을 배제한 사랑은 가능한가? 이런 사랑을 하는 남성이라면 특정한 여성에게 자신이 그려놓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대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여성을 알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여성의 고유한 모습이다. 사랑은 대상을 향한 순수한 감정적 활동이다. 그래서 사랑은 지성적인 활동과 다르고 욕구와도 다르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을 바란다고 해서 물을 사랑한

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랑은 욕구에 앞서는 것이다. "사랑은 씨앗이고 욕구는 그것에서 자라난 줄기이다." 또한 사랑은 감정적인 활동이므로 기쁨이나 슬픔 같은 수동적인 감정과 다르다. 기쁨이나 슬픔은 "정신을 물들이는 물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적극적인 활동은 아니다." (EA 97)

(사랑은 정신성과 관련되고 일상과 분리되지만, 본능적인 면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곧 성적 본능이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자동인형의 성격을 지닌다.)(EA 99)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에 빠지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대상을 선택할 경우에 다른 대상과 구별하고 위계를 정하고 특정한 존재에 집중하게 된다.

어떤 것에 집중하려면 다른 것들을 무심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경우에 다른 대상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주변으로 밀려난다. 집중하는 대상 자체가 크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그것은 더 크고 흔한 대상을 누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 (EA 101)

사랑에 빠짐은 집중력이 만드는 특별한 현상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건이다. 수많은 남녀들은 무관심한 상태에서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된다. 특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고 친근감이나 호의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집중력의 정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거리에 있었고 그 거리는 직선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직선거리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 사람은 집중하고 그 대상에게 사로잡히길 원하면서 그 존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 (EA 102-3)

사랑에 빠지면 한 사람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상대가 그것을 알게 되고 집중하려는 욕구가 모이면 두 사람은 인력의 법칙에 따르는 것처럼 이끌린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중력의 속성을 잘 표현한다. "내 사랑은 나의 무게/중심, 그 사랑 어디로 가든 나는 그곳을 향하네amor meus pondus meum, il feror, quocumque feror" (EA 103)

그런데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 경우에 정신적 삶이 풍요로워 진다고 보지는다. 정반대로 의식은 자신을 지배하던 것들을 배제하면서 점차 좁아지고 왜소해진다.

한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의식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플라톤은 이런 상태를 신적인 광기theia mania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정신세계가 풍성해진다고 느낀다. 자신의 세계가 좁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정신력을 한 존재에 집중하면 자신의 존재가 최고의 강도로 유지된다는 착각이 생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런 점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신비적 체험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말

로 표현할 수 없지만) 신비주의자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신과 마주한다.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다. 세계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귀결된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5 사랑의 선택, 연금술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위장하는 점에 주목한다. 인간은 진지하게 위장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스스로 배우가 되어서 환경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르거나 스스로의 구상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한다.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의 대부분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며, 자기의 개인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말만으로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판단 근거로는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과 인상이 더 믿을만하다. 꾸밈없이 드러나는 표정과 인상이 사실은 그의 심층적 비밀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EA 134-5)

인간이 경험하는 사례들 가운데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가 사랑할 때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우리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 받기를 원한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가 그의 자연스러운 성격을 온전하게 반영한다면 굳이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EA 137-8)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기능이 창의적creador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correcto쪽이라고 본다. 의지는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충동을 만들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자극, 충동을 중지시킨다. 그래서 의지의 개입은 부정적이다. 기호, 욕구 등이 얽혀있을 때 그 하나가 다른 것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지가 하는 일은 저지당한 충동이 흐르도록 그런 억제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힘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의지가 하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EA 138)

데카르트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근대인은 자신이 의지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인간은 이성과 자유를 지니지만 그 내면에서 이성적인 것만도 자유로운 것만도 아니다. 의식, 정신만으로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삶은 의지와 다른 힘에 이끌린다. 이런 힘들의 갈등은 사랑 대상을 선택할 때 잘 나타난다. (EA 139-140)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 대상을 선택할 때 우리가 내밀해진다íntimo고 지적한다. 사랑은 내면적 심층을 지니므로 그 감정이 즉흥적이더라도 선택의 기로에서 더욱 내밀해mas íntimos진다. 그

는 사랑이 "형이상학적 감정sentimento metafísico"이고 (우주로부터 받아들인)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인상impresión radical, última이라고 본다. 이런 인상이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고, 느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런 힘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의지에 상관없이, 의지와 경험,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이끄는 어떤 힘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인 남성은 주변 여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관심 범위 안에 있으면 일정하게 자극을 받는다. 이런 자극은 자동적이고 그녀를 향한 최초의 움직임을 낳는다. 그런 자극이 상호 교환되면 '첫 움직임'은 '더 깊은 감정을 불태우기 위한 부싯돌'이 된다. 이런 초기 감정은 일단 나타나면 영혼의 중심을 바깥의 감정과 연결시킨다. 곧 우리의 반경 인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의 반경으로 자기를 옮아가도록 한다. (EA 141)

이런 관심이 사랑이다. 그 관심은 많은 여성 가운데 단 한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 많은 끌림 가운데 단 하나의 끌림을 선택한다. 사랑을 만족시킬 대상은 언제나 단수이다. 그리고 참된 사랑에는 성적 본능instinto sexual이 따른다. (참된 사랑이 성적인 것과 관계없다는 보거나 그 반대로 사랑이 성적 욕망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본능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많은 대상을 지니지만 사랑은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이 선택이라고 본다. 사랑은 인간에게 마음의 중심인 정신적인 심층에서 시작되는데, 사랑이 확장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중심의 힘이 사랑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보다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선호를 부여한다. "사랑이 구체적이고 현미경과 같다면 본능은 엉성하고 망원경과 같다."(EA 143)

사랑과 본능은 그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은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다르게 말할까? "여성을 사랑하지 않는 남성은 그 여성의 얼굴과 몸매 같은 굵은 선만 보지만, 사랑하는 남성에게 그 굵은 선들은 이미 지워진 상태에 있다. 그가 보는 것은 그 여성의 눈빛이나 윗입술과 아래 입술이 만나는 모양, 또는 목소리의 음조 같은 것들이다."(EA 144)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지향을 분석할 수 있다. "자신의 깊은 곳에서 떠난 감정이 그 사람을 지향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선이 잦은 만남으로 매듭지어지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는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은 단조롭고 끈질기며 무겁다. 상대가 매번 새롭고 기지 넘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똑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하기를 바란다." (EA 145)[4]

---

[4]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안에 갇혀 있거나 그 자체로 자족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참고문헌

Jose Ortega y Gasset, Estudios sobre el amor(EA로 줄임),

Madrid : Revista de Ocidente en Alianza Editorial , 1984

에게 채워져야 하는 텅빈 존재이고, 그 타자에 이끌리고 자기를 내맡기면서 사랑의 연금술의 재료가 되고자 한다. 시랑이라는 연금술사는 사랑하는 이들을 녹이고 벼리고 현성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사랑하는 너와 나는 각자의 개별성을 넘어서 사랑-관계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